

안동권씨 대종회 제1회 인사위원회 개최



안동권씨 대종회 인사위원회가 7월 8일 11시 대종회 3층 회의실에서 권영하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권철환 수석부회장, 권수웅 상임위원, 권병돈 상임위원, 권정길 상임위원, 권오상 상임위원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권영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종회에서는 총무국장을 모시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종보에 모집 광고를 내었는데 지원을 한 분이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인사위원회를 모시고 총무국장 지원자에 대한 심의와 평가를 하오니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원자 권기모씨는 올해 70세로 고향이 예천이며 복야공과 36세이다.

권철환 수석부회장은 안동 능골은 한번이라도 가봤나라고 물으며 마음속에 안동권가에 대한 봉사의 마음이 있어야 전국 안동권문을 학회해야 하는 자리를 맡아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돈 상임위원은 현재 종보를 보고 있다. 총무국장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총무국장은 사업기획, 경리업무,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액셀 활용을 할 수 있으며 활용 능력

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권수웅 상임위원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성씨를 보면 노씨와 박씨에서는 2 사람씨이나 대통령이 나왔는데 100만 거족인 안동권씨에서는 왜 아직까지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총무국장은 가정 살림꾼이고 집 안 사람 같은 사람이다. 어머니처럼 포용력 있게 품고 하나 되게 해야 한다. 여기서 그 힘이 나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철환 수석부회장은 대종회가 똑바로 서야 권문이 똑바로 선다. 그래야 인물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권정길 상임위원은 대종회는 총무국장의 중추적 역할이 필요하다. 지원자가 사회생활과 공직생활 등 경험을 살려 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오상을 상임위원은 사정상 늦게 도착하였으나 함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개최된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사무총장과 국장 등 대종회 직원 채용 시 면접 전형을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안동권씨 중국청도종친회 친목 모임



앞줄 왼쪽부터. 권오덕 회장, 권경, 권오철 대령우도환경기술재료유한공사 이사장, 권순기 중국아세아경제발전협회 회장, 권영연 지혜어업집단 이사장, 권호군 단동 월드옥타 회장, 권오감, 앞줄 왼쪽부터. 권오생(대법)/권태명(북경)/권원국(청도)/권오갑씨 부인

안동권씨 중국청조종친회(회장 권오덕)에서는 지난 6월 22일 권영연 지혜어업집단 사장의 공장이 위치한 대련 앞바다 섬을 방문하여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회원들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여 좋은 일 있으면 서로 홍보하고 각자 하고 있는 사업 소개는 물론 기회가 되면 바이어도 소개하여 안동권씨 후손들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마음을 모았다. 다음은 즉석에서 모임을 기념하여 권오철 이사장이 지은 글이다.

安東權氏宗親會 安東권씨 종친회
同聚大連享情誼 大連에 함께 모여 친한 정을 나누네
千年血脉源同根 천년 핏줄은 근원이 한 뿌리인 것을
濟賞海天共此時 건너가는 바다해를 감상하면서 다같이 이 시간을 즐기네

이날 행사에는 대련 권오철 동사장이 유니폼을 준비하여 한 사람당 각 2벌씩 나누어 주었다. 회원들은 내년에는 요녕 단동에서 암록강을 보면서 모임을 갖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권오철 중국청도종친회장

좌윤공파 사정공 종종 기로연



좌윤공파(佐尹公派) 사정공종종(司正公宗中) 기로연(耆老宴)이 7월 3일 낮 경주시(慶州市)내 한 식당에서 열렸다.

권의호(權宜鎭, 울산종친회장 신대 문종)·권혁길(權赫吉, 언양노인회장 사직공문종)·권택종(權宅宗, 퇴암공 주손)·권상택(權相澤, 매현 문중유사) 후손 등 75세 이상 80여 명이 참석, 지난 1445년 조선(朝鮮) 6대 임금 단종(端宗) 복위 운동이 실패로 경상도(慶尚道) 연일현(延日縣) 대접산(大岑山)으로 유배를 오신 임항조 사정공(司正公, 虞諱 수해壽海 19세)의 음덕(陰德)을 기리고 친족정신이 날로 두터워지길 빈다.”고 말했다.

이날 기로연(耆老宴)은 권혁웅(權赫雄, 경주종친회장)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위원장과 산하 문종 대표 인사, 견배, 문종 소식, 사정공 족보 수단 당부, 오찬까지 3 시간 만에 끝났다. 권오신 좌윤공파회장

을 쌓았다.

권혁조(權赫照, 연일문중) 위원장은 기로연(耆老宴) 인사말을 통해 “임항조 사정공(司正公)의 음덕(蔭德)으로 오늘처럼 후손들이 번연(蕃衍) 했다. 앞으로도 사정공 선조의 절의(節義) 정신을 본받은 국가적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친족정신이 날로 두터워지길 빈다.”고 말했다.

이날 기로연(耆老宴)은 권혁웅(權赫雄, 경주종친회장)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위원장과 산하 문종 대표 인사, 견배, 문종 소식, 사정공 족보 수단 당부, 오찬까지 3 시간 만에 끝났다. 권오신 좌윤공파회장

동정

▲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신임 총장이 22일 가좌캠퍼스 대강당에서 총학 생회 간부, 각 교직원단체 대표, 대학 구성원 등 6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취임식 및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권 총장은 교육, 재정학총, 연구, 사회적 책임, 복지, 행정 등 대학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권 총장은 삼성항공우주산업(현 KAI) 선임연구원을 거쳐 1997년 옛 경상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교수로 부임한 후 공과대학 부학장, 기획처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복합재료학회 회장, 교육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우주항공정책포럼 공동회장, 한국항공우주학회 석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기는 2028년 6월 23일까지 4년이다.

업의 기술 및 서비스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IT, 자동차, 드론, 바이오,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기업의 유망한 AI 융합사업 모델, 기술 상품을 상장시키고 해외 기업, 대학, 기관 등과 글로벌 상설 네트워크와 해외 진출 및 협력을 해오고 있다.

▲ 권락현 세무사가 서초지역세무사회 신임 회장에 7월 3일 취임했다. 권 락현 신임 서초회장은 한양대 경영학과와 방통대 중어중문화대학원을 졸업했다.



린 선전드론박
람회 2024(UAS EXPO CHINA 2024)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는 AI 기

업의 기술 및 서비스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IT, 자동차, 드론, 바이오,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기업의 유망한 AI 융합사업 모델, 기술 상품을 상장시키고 해외 기업, 대학, 기관 등과 글로벌 상설 네트워크와 해외 진출 및 협력을 해오고 있다.

▲ 권재한 제32대 농촌진흥청장이 지난 7월 8일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권재한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약 30년간 농식품 정책을 수립해 온 정통 관료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행정고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수산식품부(현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식품산업정책팀장, 식품산업정책과장과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식품산업정책실장, 차관보 등을 지냈다.

▲ 권오남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는 세계 수학교육심리학회(International Group for the Psychology of Mathematics Education)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장 임기는 3년으로, 아시아 여성 학자가 이 학회의 회장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7년 설립된 세계수학교육심리학회는 수학교육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 권 교수는 작년 12월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수학교육심리학회(International Group for the Psychology of Mathematics Education)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장 임기는 3년으로, 아시아 여성 학자가 이 학회의 회장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7년 설립된 세계수학교육심리학회는 수학교육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 권 교수는 작년 12월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 권태민 거제관 광개발공사 상임 이사가 지난 6월 8일 제20대 경남 산업고등학교 총 동창회장에 취임했다. 권 취임 회장은 “부족한 제가 모교 동창회장에 취임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태민 신임 회장은 하청면장과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 권혜영 국제대학교 교수가 제21회 대한민국통일문화제에서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권 교수는 미술부문에서 통일과 예술을 접목한 작품으로 통일에 대한 메시지와 통일의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하여 입상하였다. 권 교수는 상위 1% 명강사로 국방부, 법원, 교육청, 최고위 CEO 과정 등 다양한 청중들을 대상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화장품 인문학의 길에서 묻다’ 등 20여 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자랑스런 한국인상과 대한민국 국회 최고지도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메시지와 통일의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하여 입상하였다. 권 교수는 상위 1% 명강사로 국방부, 법원, 교육청, 최고위 CEO 과정 등 다양한 청중들을 대상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화장품 인문학의 길에서 묻다’ 등 20여 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자랑스런 한국인상과 대한민국 국회 최고지도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 권희준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회장이 5월 24일 지난 9년 동안 한국, 중국과 일본 드론 기업 및 협회의 교류를 늘리고 협업을 통해 한·중·일 드론 산업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선전(Shenzhen, 심천)에서 열

안동권씨 거처사종중 임시총회 및 야유회 개최



2024년 7월 20일,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 구룡사 계곡 산내들 가든에서 안동권씨 추밀공파 거처사공 종종(회장 권병규)의 하계 야유회가 부부 동반으로 개최되었다.

많은 종원들이 참석하여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 화합의 장이 마련되어 종회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2024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와 장수 축하금을 전달하는 등 명문가가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고 의미 있는 하루였다. 권병규 거처사종중 회장



조선읍지 영가지와 용만 권리 학술발표회 성황리 개최

옹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 서세 400주년을 기념한 학술발표회가 7월 16일 14시 안동시청 대동관 낙동홀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경희 안동문화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주요 참석 인사는 권기창 안동시장, 권석환 안동문화원장, 박승대 경상북도문화원장, 박태주 의성문화원장, 이성우 청송문화원장, 손병선 광복회 안동시지회장, 이충섭 성균관유도회 안동지부 회장, 임동구 전 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경북본부 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안동권씨 문중 인사로는 권계동 고문, 권영창 대종회 회장,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권정창 제례위원장, 권영상 복야공파종회장, 권오신 좌윤공파종회장, 권중수 영주종친회장, 권오극·권혁창 용만 권리 선생 후손 대표, 권기덕·권기호·권세복·복야공파종회 고문, 권재주 안동권씨 원로원장, 권감현 편집위원장, 권오상 사무총장, 권행완 편집국장, 권오의 사무국장, 권주연 전 안동종친회장, 권용주 마애선생 유적보존회장, 권경웅 전 대종회 부회장, 권광태 경상북도의원, 권영건 전 부호장공파회장, 권기성 대종회 이사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뺏내주었다.

주체죽은 먼저 용만 권리 선생의 일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선읍지 영가지와 용만 권리’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상영하였다.

박승대 경상북도문화원장은 개회사에서 “안동의 명망있는 선비, 용만 권리 선생은 학문에 전념하여 육경에 통달하고 예문, 법률, 지리 등에도 박식하여 안동읍지(영가지) 8권을 편찬하신 분입니다. 특히 스승 서애 류성룡의 부탁으로 편찬한 영가지는 안동지역의 행정체계와 사회, 경제, 문화, 풍속 등이 세세하게 총망라되어 있어 체계가 정연하고 내용이 충실히 지방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입니다. 벼슬에 나아가기보다는 평생을 학문에 정진하였던 용만 선생의 선비정신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고 있으며 잊지 않고 계승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권기창 시장은 축사에서 “안동은 선비 정신이 살아있는 고장이다. 영가지를 편찬한 용만 권리 선생의 학술발표회를 축하하고 후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권기창 시장은 축사에서 “안동은 선비 정신이 살아있는 고장이다. 영가지를 편찬한 용만 권리 선생은 가문의 중대한 임무로 안동권씨 을사보인 족보를 편찬하였고 애향

심과 선비정신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사찬 지리지인 영가를 편찬하였습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가치를 찾아 기록으로 남기면 그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그 빛을 발하여 한 줄기 빛처럼 길을 밟혀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권혁창 용만 선생 13세 후손은 인사말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원근 각지에서 찾았던 내외 귀빈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용만 선생은 영가지 외에도 흐름 근본으로 삼고 몸소 실천하신 분으로 비록 벼슬길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학문에는 분전에 침착하고 예문, 법률, 지

리, 외가집설 등 달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던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진영 전 국립안동대 교수는 ‘옹만 권리의 생애와 영가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 교수는 “그 무엇보다도 안동의 역사와 문물을 아울러 접대성한 읍지(영가지)의 존재야말로 안동을 안동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영가지가 없다면 안동이 안동다울 수 있었을까? 역사가 없는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나라와 지역은 그저 하나의 행정구역에 불과하다. 영가지의 가치와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임노직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용만 권리기는 18세부터 송암 권호문의 문하에 들어가 스승이 죽을 때까지 가까이 모시면서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한 채 처사로 인생을 마친 인물이지만, 스승 권호문을 위해 청성서원을 건립할 정도로 상당한 성도의 사회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권리의 삶과 행적과 의식은 구사시(九思詩)의 작품에 짐승되어 있다. 구사시는 우리나라 도학 및 성리학의 학문적 연원, 즉 도통과 연계된 9인의 행적을 기리면서 권리 자신의 견해를 학문적 관점에서 표방한 시이다. 그 아홉 사람은 송암 권호문, 학봉 김성일, 퇴계 이황, 회재 이언적, 한훤당 김광필, 일두 정여창, 정암 조광조, 포은 정몽주, 애은 길재이다.

권기자는 1607년 서애 류성룡의 태계로 편찬 일정에 큰 차질을 빚었으나, 한강 정구가 마지막 지방관으로 안동부사에 부임하며 지지청(地誌廳)을 설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 결국 완성하게 된다. 한 절은 청성서원에, 또 한 절은 권리의 후손이, 마지막 한 절은 안동부에 보관하였다.

권행완 편집국장